

고킨텐주노마

고킨텐주노마는 일본 문학 및 황실 전통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채로운 역사를 지닌 오래된 건물입니다. 고킨텐주(古今傳受)란, 다이고 천황(897-930)의 명으로 편찬되어 ‘고금집(古今集)’에 수록된 일본 정형시인 와카에 대한 난해한 해석을 구두로 전승하는 전통을 뜻합니다.

총 21 개의 칙찬 와카집(천황 또는 상황의 명으로 편찬된 와카집)이 편찬되었는데 1,111 수가 수록된 가장 오래된 고금집에는 그중 450 수 이상이 익명으로 지어졌으며, 그 외에는 120 명이 넘는 시인이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지은 와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소카와 가문 초대 구마모토번의 번주인 호소카와 다다토시의 할아버지 호소카와 후지타카(1534-1610)는 고요제이 천황(1571-1617)의 동생인 하치조노미야 도시히토 친왕(1579-1629)에게 고금집 해석을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전통적으로 귀족 관료가 담당해야 했는데, 무사인 후지타카가 이 역할을 맡게된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고킨텐주노마는 본래 교토고쇼 부지에 있던 팔작집 지붕의 건물로 400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877 년, 세이난 전쟁으로 소실된 다실을 대체하고자 1912 년에 스이젠지 조주엔 정원으로 이설되었습니다. 1955 년부터 일반 공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 년에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부 장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실 안쪽의 맹장지에 그려진 푸른 꽃의 그림은 ‘고시치노키리(5·7 의 오동나무)’입니다. 한때 오동나무는 황실의 문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좌우 줄기가 5 개, 가운데 줄기가 7 개의 꽃을 피운다고 하여 ‘고시치노키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망 좋은 방

왼쪽에 야쿠 삼나무가 그려진 2 장의 맹장지는 박진감 넘치는 나뭇결무늬 위에 소량의 검은색 안료를 덧칠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도쿠가와 막부(1603-1867)의 지원을 받았던 당시 일본화의 유력 유파인 가노파의 가노 에이토쿠(1543-1590)가 남긴 유일한 수묵화입니다. 건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5 개의 기둥과 천장은 갈라진 틈으로 보이는 까칠까칠한 표면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뽕죽한 아치형의 창문이 있으며 창문 너머로 연못의 먼 경치를 바라보고 있자면, 마치 산 풍경을 담아낸 미니어처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느껴집니다. 바로 앞 오른쪽 구석에는 ‘고킨텐주노마쓰(고금 전수의 소나무)’로 알려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고요제이 천황의 동생인 호소카와 후지타카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고킨덴주노마쓰

1600 년, 후지타카는 교토와 가까운 단고 지역의 다나베성에서 벌어진 공성전으로 인해 포위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후지타카는 자신이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금집의 전승을 지키는 자로서 성내 정원에 있는 소나무에 ‘고킨덴주노마쓰(고금 전수의 소나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요제이 천황은 후지타카의 죽음으로 인해 전승이 단절될 것을 염려하여 포위하고 있는 자들에게 후지타카를 풀어주도록 명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불안함을 느꼈던 후지타카가 마음을 나눴다고 알려진 이 소나무는 훗날 시들어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았는데, 인생의 고난을 회상하고자 ‘고킨덴주노마’에 고요히 안치되었습니다.

안쪽 방에 그려진 맹장지 그림은 가이호 유쇼(1533-1613)가 그린 유명한 ‘죽림칠현도’(竹林七賢圖)를 재현한 것입니다.